

새로운 실크로드 교통의 연결

란지트 호스코트

독립큐레이터

○접점으로서의 실크로드 : 그 과거와 현재

역사적 현사으로서 그리고 인적 교류와 문화적 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유로서의 실크로드는 국가, 인종, 지역과 종교에 의하여 그어진 국경을 가로질러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창조적 개인들의 범 아시아적 공동체라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그러한 범 아시아적 이상은 20세기 초 비전을 가졌던 인도의 시인 겸 화가였던 라빈드라나스 타고르에게 영감을 주었다. : 그것은 그로 하여금 중국, 한국과 일본에 여행하며, 이들 국가의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에게 따뜻하고도 단체 조직적인 우정을 갖게 만들었다. 본인은 인도의 미술비평가 겸 큐레이터로서 범 아시아 이상을 실천하려는 유산의 연장선상에서 여기 부산에 오게된 것을 특권과 즐거움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동의 이야기로 일컬어지는 문화사는 정착의 이야기로 일컬어지는 문화사보다 항상 더 계몽적입니다. 인간의 발전은 그것이 미적 정교함의 형식이든지 아니면 기계공학적인 혁신의 형식이든지 간에 국경 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자극되어져 왔습니다. : 중심지의 위안은 인간의 발명의 재능을 과거 업적에 대한 은근한 금지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정착한 개척자보다는 차라리 이주자가 역사적 변혁의 동인이 되어왔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경우에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동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실크로드가 입증합니다. : AD 3세기와 13세기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심장지대와 레반트 연안 사이의 주요한 무역로였던 길이 8,000 km의 이 길을 기억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오늘날, 실크로드는 우리에게 우리 대륙의 사회와 문화를 다시 새로워진 상호 관심사 속에서 조망하며, 대화와 제휴 그리고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공유를 위해서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잠재력을 탐구하는 영감을 제공한다. 진실로, 실크로드는 우리에게 아시아의 재 개념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 즉 아시아란 무엇인가? 라는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나는 실크로드에 관하여 변치 않는 교훈 중 하나가 나에게서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당신에게 묻고 싶다. : 그 교훈은 불행한 나라를 통치하는 극단적인 이슬람교의 탈리반 정권이 이슬람교 이전에 세워진 모든 과거 유적을 무참하게 파괴하라는 야만적인 결정을 내렸던 지난 달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비극에 의하여 강조된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의 상징이자 희망과 변혁의 상징인 바미얀 소재의 두 개의 거대한 마애석불의 무참한 파괴를 의미한다. 한 아시아의 정체성의 문제는 바미얀의 위기로 인해 생생하고도 비극적으로 변했다. 바미얀은 한 때 옛 실크로드에서 번창하는 간이역이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 부카라, 키바와 야르칸 같은 전설적인 도시들처럼, 그 곳은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간이역 중 하나였다. 유명한 중국 승려 학자인 현장이 AD 629년 바미얀을 지나 황제 하르샤바르다나의 궁전과 인도 북부의 날란다대학교에 가는 길에 그 곳을 조각가들, 화가들과 장인 건축가들이 운집해 있는 미술의 중심지라고 칭찬했다. : 불교 성지 중 하나인 바미얀에는 수많은 승려들이 모였으며 아시아 모든 지역으로부터 순례의 목적지였다.

바미얀과 그 기념비적 불상들이 안치된 것은 다양한 민족과 세계관 사이의 접점, 대화의 문화인 세계교회 사회의 기억이었다. 왜냐하면 바미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 즉 역동적인 문화적 잡종의 환상적인 모델을 육성했던 쿠산왕조가 건립한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AD 1세기와 4세기 사이에 번창했던 쿠산 왕국은 무역과 침략의 수레바퀴 속에서 아프간 고원지대에 인도,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스키타이의 다양한 문화를 이식시켰다. 스리나가르에서 유명한 황제 카니쉬카가 소집한 회의에서 공식화된 불교사상의 관용어들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이곳으로부터였다.

쿠산인들은 BC 165년에 동쪽간 갈등이 있는 후 고향을 등지고 북서 중국으로 건너가 유목민 무사가 되었던 유에-치 부족 계통이었다. 그들이 중국에는 역사상 가장 큰 왕국 중 하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 그 정점에

있는 카니쉬카 아래서 쿠산왕국은 북서부에서는 옥서스 그리고 남동부에서는 나르마다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광활한 대지를 덮고 있다. 표현의 다양성은 다문화적, 다인종적, 다종교적 왕국의 특징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오늘날 아시아가 직면해 있는 선택의 양극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의 극단주의에 항의했던 정통 모슬렘 신학자들에게조차도 정면응로 대응하는 탈리반 정권은 그들의 작업을 미완성된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 그것은 지구 전체, 확실히 아시아에 그들 방식의 이슬람을 강요하며, 모든 문화적 다양성, 모든 관점의 차이, 미적 창조성의 모든 표현을 파괴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실크로드를 동일하게 미완성된 프로젝트이지만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는 우리의 모델을 갖고 있다. : 만약 우리가 낭만적인 성향이라면, 우리는 개방, 포용, 문화적 다양성, 미적 다원성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쿠산의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만약 탈리반의 모델에 저항하기를 바라다면, 우리는 과거를 복원시키고 미래를 위해 그것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우리 자신의 신념 위에서도 행동해야만 한다.

○아시아의 변화하는 이념 : 두 개의 미완성된 프로젝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미완성된 프로젝트, 탈리반과 쿠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시아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야만 한다. 이 질문은 우리를 역사적인 사색과 탐구라는 매우 호기심 있는 영역으로 이끈다. 그것이 유럽-미국적 관점에서 표현된 고전적인 민족지학적 관심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아시아인으로 지각하도록 재교육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해 말할 때 엄밀하게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하도록 자극시킨다.

우선, 아시아에 대한 이념을 유럽식 담론(후에는 미국식 담론)에 의하여 15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정의된 것처럼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정체성으로 밝히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반응은 유럽의 향료를 찾아 나선 여행 기간 동안에 가졌던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부터 초기 식민통치 기간동안에는 호기심과 공포감으로, 그리고 말기 식민통치기와 냉전 동안에는 착취적인 탐욕과 경멸과 속임수를 통하여 변화되었던 지난 5세기 동안의 다양한 기록들을 통하여 사라졌다. 이 모든 태도는 세계화의 시대에 갱신된 관심사와 이해력의 척도를 첨가시켰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미국과의 관계는 또한 문화 분야에서도 아시아가 타자(他者), 실낙원이나 위험의 피신처, 유럽 낭만주의의 시와 소설, 동양학, 초기 모더니즘 회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 문화와 영화에 나오는 말라리아와 기적의 장소로 보이는 것으로 비쳐졌다. 아시아의 문명적 기여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문명에 끼친 아시아의 영향에 관심을 끌게 하는 동/서 관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며 서구적인 재평가는 요셉 니드햄, 잭 구디와 리차드 래노이 같은 학자들의 저서에서 발견될 것이다.

식민통치가 시작된 이래 과거 500년 기간동안, 아시아 각 국은 다른 식민통치 정권에 의해서나 아니면 분열되었고 내부적 정치제도, 국제 전략적 설정 혹은 문화 경제 정책의 선택에 의해서 종종 분리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 국가는 동서 간에 식민통치가 있기 전에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대화 관계를 재개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자연적 풍요로움과 인간의 반항을 향유했던 영토, 그리고 인종적 기질로 인한 문화적 표현성에서의 풍부한 잠종을 보여주었던 영토 사이의 관계였다. 유럽-미국 관찰자들이 확립시킨 관점들을 통하여 조정되지 아니한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재교육으로부터 생겨나는 아시아는 유럽-미국 관찰자들이 적용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정의된다. 이 아시아는 불교 순례길과 향료무역, 라마야나의 여행 신화와 비단의 바스락거리는 폭포, 차와 쌀, 인력거와 홍수물에 의하여 함께 엮여진 정체성, 문화와 지리의 집합이다. 이 아시아는 중심지와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변두리와 절충에 의해서, 그리고 정착의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의 역사에 의해서 정의된다. 역사적으로, 해상의 아시아는 서쪽 끝에서 오는 아랍 범선과 동쪽 끝에서 오는 중국 마약의 횡단 여행에 의해 정의되었다. 다시 한번, 아시아 정신은 기업가와 생존자의 정신, 현세와 내세, 색채의 기호학,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쁨과 위험, 시와 음악을 믿으면서 내부 아시아의 설선 경제 그리고 연안과 연해 아시아의 문순 경제 사이에서 이주하는 민족들의 정신이다.

아시아 국가들을 결합시킨 경제, 문화적 교류의 망들이 해체되고 유럽의 권력에 의하여 건조된 배관망 아래서 재조립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관계는 간섭을 받았으며 종종 체계적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현재 관리자의 입장으로 제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대화 관계를 다시 한번 모색하고 단절되어 보수를 요하는 송신선을 통하여 접촉할 많은 기회를 찾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500년 전과 같이 더 이상 동일한 문화 속에 있지 않다. : 그러나 많은 양상들이 과거에서 현

재로 지속된다. :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현재의 문화들은 서로 서로 매우 다르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식민 착취나 간접적 지배라는 동일한 상처, 동일한 경제적 굴욕으로 고통을 받았다. : 우리는 창조성의 동일한 회복력에 의하여 고무된다. : 우리는 그 새로운 식민 경제적 측면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반면에 유용해지는 기회로부터 이득도 보게 되는 세계화의 동일한 양극적 현상을 접하게 된다.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를 확장해감에 따라 그것의 온화한 균질화를 촉진시키는 반면에, 그것은 또한 새로운 동족의식의 형태를 띤 위험한 반작용도 야기한다.

환언하면, 아시아의 번창하는 시장과 궁전, 수도원과 하류민 사회에서 확립된 전통적 관계는 단절된 국가들로서가 아니라 다시 복원된 맥락으로서, 그리고 길(이 제안의 제목임)을 따라 힘을 모으며 한쪽의 발송문을 다른 쪽에 전달하는 메시지들의 중계로서 재확인되고 진척될 수 있다.

○지구촌 시대에서의 아시아 중심도시 : 옛 신화와 새로운 신화

통로, 통행과 이주의 현상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당대 아시아의 주목적이라고 제시된다. 세계화의 시대에 이 현상은 사람, 상품, 서비스, 기술과 이념의 전통적인 아시아간 교류는 더 커진 지구촌 교통의 패턴 내에서 겹쳐졌다는 사실로부터 부가적인 뒤틀림을 얻는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들 중에는 아시아에서 서구로의 자원의 이동이 있다. : 이것은 두뇌 유출(고등 기술을 가진 정신노동자의 정당한 이주) 뿐만 아니라 노동 유출(중종 미숙련 노동자의 불법적인 이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아시아 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형태의 이주는 전재오가 인종 분쟁의 위기지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난민의 탈출이다. : 또한 수력발전댐 체계와 같은 발전 프로젝트에 의한 인구 이전의 경우이다. 동시에, 초국가적 협력은 우리 국가들에서 유용한 책임금의 정신, 육체노동을 이용함으로써 양복제단사와 구두제작자의 육체적 고역에서 그리고 서양에서 동양으로 하청을 준 의료 복사 기록기와 전화 고객 서비스의 뻑뻑한 일에서 공히 실현된 착취공장 경제를 탄생시키면서 아시아 내에서 그들의 활동을 저지시킨다.

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세계화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획득과 기대의 패턴으로 도시문화의 변화된 속도와 실험적인 기조에 상응하여 물질적, 상징적 실재를 변형시키는 것을 겨냥하는 소비자 상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방이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엘리트와 그 아래 그룹, 비공식적이고 조직화된 경제적 영역, 전통적-산업적, 후기산업적 기술 체계 사이의 차이점들의 예리한 뒤틀림으로 이끈다.

다 채널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기반을 얻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진다. : 사회적 구조에 관련지어 말하자면 이것은 나이 그룹과 수입 그룹 사이의 갈등으로 번역된다. 지역과 지구, 재순환되는 경제와 하찮은 경제 사이의 들쭉날쭉한 경계에서 우리는 경험과 표현의 잡종성을 발견한다. : 우리는 생존을 위한 대중적 투쟁 뿐만 아니라 미술 차적의 갱신을 위한 개인적인 투쟁도 발전하며, 양자는 종종 연결된다.

아시아 중심도시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구현하고 있다. : 그 후기-식민적 혹은 후기-냉전적 특성, 그 다공성 구조와 인종 혼합적 배열, 그 갈등적 감성과 그 민족의 창의력, 선진 공업제국 생활방식에 대한 동시적이고 양의적인 개방 그리고 농촌 후배지의 전통은 여기서 재검토된 문제들을 극적하게 만든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강조는 도시문화의 위치에서 시험받는다. : 정체성, 소속과 자기주장의 문제들은 여기서 규정된다. 만약 아시아 주요도시가 잡종성을 축복한다면, 그것은 또한 긴장이 들끓는 상황일 것이므로 그 자체가 우리의 문화 간 토론을 위한 적절한 환경으로 제시된다.

내가 살며 작업하는 봄베이에서 다양한 정치적 연합과 대립이 대중적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그 대중적 영역은 지구적인 것(선전 공업제국 상품의 번쩍거림, 네온사인, 광고 형상, 사이버 공간의 초대)과 지역적인 것(지역 언어로 된 원고, 정치적 슬로건의 외침과 텔레비전 연재물 신성한 것, 공공 종교축제,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환경에서 아직도 거리의 성지에 참배하는 민중 숭배 지역 언어로 된 원고, 정치적 슬로건의 외침과 텔레비전 연재물을 통하여 개량되고 연계된 신성한 것)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모더니티와 후기 모더니티 그리고 거센 도전에 맞서서도 잔존하는 심오한 문화적 영속성의 유형 사이의 접점의 현상은 인도,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이나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재발하는 현상이다.

각자가 상대와의 충격 때문에 뒤틀려버린 옛 지역 신화와 새로운 지구 신화 사이의 이러한 충돌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거리이다. 종교와 향락은 아시아 주요도시에 그 초상을 제공하려고 경쟁한다. : 조상신들을 따라 참배하면서 우리는 정보-기계공학 마법사, 팝-도사, 정치인, 모델, 스포츠맨과 대중음악가, 영화와 텔레비전 스타 같은 그러한 숭배 초상을 발견한다. 진실로 신화적 구조의 이러한 동시성, 그것들의 충돌과 영속, 그것들

의 화석화와 변화는 아시아 주요도시가 모더니티의 해석에 경쟁하면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달려 있다. 이것은 그것들이 미적, 비판적, 관리적 상상력과 이러한 새로운 실�크로드의 교통로를 결합시킬 때 아시아의 문화들 사이의 미래 대화의 특별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새로운 이해의 전략을 향하여 : 실�크로드의 정신

그러한 위치에서 예술가, 비평가, 큐레이터로서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입증하기에 부적절한 화량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봄베이에서 나는 예술가들의 화량 재귀성을 단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고급미술의 경고신호를 받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장소인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도록 촉구하는 실험을 해왔다(내가 2000년 2월 봄베이의 칼라 고다 미술제를 기획했던 대중미술과 설치미술 프로젝트인 <입구만들기>에서처럼).

우리 예술가들이 한편으로는 미술관/화랑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 사이의 이동 공간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의 미술은 점차 형식적 문화를 가진 박물관 그리고 현대 문화가 생산, 순환되는 장소 사이에서 생산된다. 그 과정에서 몽타주와 브리콜라주, 새로운 문화적 언어를 통하여 미술 창작과 대중전달의 전략이 탐구될 것이다. 만약 내가 인류학자(미국적 경향을 가진 것임)로서 말한다면, 나는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러한 탐구가 공간을 보여줄 것이므로 대중은 참으로 새로운 미술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제안할 것이다.

그들은 미술, 공예, 패션, 하부문화적 도로표지와 대중 시각적 재료로 분류하는 관습적인 경계가 지워지는 새로운 표현적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서 미술경험은 전자적, 사이버적, 개념적/언어적 재료와 형식적 회화와 조각의 상호작용적 연관을 통한 재능있고, 발전되며 레디메이드적인 사물들의 결합에 의하여, 시각미술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 고안에 덧붙여 청각적, 건축적 고안을 통한 유사미학적 수단에 의하여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많은 예술가들이 수 십년 동안 국제적인 미술(즉 뉴욕의 것임)의 직선적 발전에 뒤떨어졌다고 확신했던 지각사태를 만회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이 제안이 발전에 뒤떨어졌다고 확신했던 지각사태를 만회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이 제안이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의 예술가들이 공동 전시공간에 모일 때 그들이 발전의 관심과 방향에서의 차별성에 의하여 분리되는 이러한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 처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로 이러한 차별성의 자각은 아시아 예술가들이 그 차별성을 반영하고 아시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진화적, 역동적, 만화경적 감각 내에서 그들의 창작을 맥락화할 때 흥미로운 복잡성을 창조할 것이다. 공통적인 정의들은 보통 공유된 특성의 감상 위에 기초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차별성에 대한 건전한 지식을 통해서도 발전될 수 있다.

미술비평가 겸 큐레이터로서 말하자면, 나는 새로운 실�크로드 교통로의 결합 행위가 우리에게 예술가, 비평가와 큐레이터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로써 결론내리고 싶다. : 그러한 결정은 낙관주의와 고조된 책임감을 공히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성의 찬양을 진실한 교육적 과정으로 축하하는 이해의 전략을 밝히면서 우리 환경의 문화적, 정치적 복잡성에 대해 과거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시아 각국을 열전과 냉전의 커다란 게임에서 선수들의 전략적 관심사에 기여하는 신 식민적 노예로 보았으며 대립적인 다양한 국제적 블록들에 대한 후방기지와 전방완충기로 보았던 20세기의 우리의 지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국가들을 그 가운데서 정보와 통찰력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일련의 문화적 발송문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해방적인 충동과 옛 실�크로드를 특징지었던 정신의 관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에서이다.